

是也 金宗鎭의 아나키즘 수용과 독립운동

이 성 우*

1. 머리말
2. 국내독립운동과 만주망명
 - 1) 가계와 국내독립운동
 - 2) 만주망명과 운남육군강무학교 수학
3. 아나키즘의 수용과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 1) 상해에서의 활동과 아나키즘 수용
 - 2)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과 한족총연합회 조직
4. 맺음말

<국문초록>

충남 홍성 출신 독립운동가 김종진에 관한 연구이다. 김종진은 1920년대 만주에서 아나키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민족해방운동기지를 건설을 추진하며 아나키즘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고향에서 3.1운동에 참여한 후 친형 김연진이 활동하던 만주로 망명해 광한단원들과 국내로 무기반입을 시도했으며, 이회영의 소개로 상해에서 신규식을 만났다. 그는 신규식의 추천으로 운남육군강무학교를 졸업했으며 상해로 돌아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과 아나키스트들과 교유하며 대한교민단의 의정대에서 활동했다. 그는 천진에서 다시 이회영을 만나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만주에서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과 한족총연합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학계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잘못 이해된 부분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김종진과 관련된 최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강사(swmy@cnu.ac.kr)

초의 연구라 할 수 있으며 그의 3.1운동 참여와 운남육군강무학교 졸업과 관련된 오류를 수정했으며, 광한단과 대한교민단 활동, 중국에서 활동하던 아나키스트들과의 교류과정 등을 새롭게 밝혔다. 이회영과의 관계를 그의 가문을 통해 규명했으며,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과 한족총연합회 조직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규명했다. 또한 그의 독립운동에는 김연진 외에도 홍성의 안동김씨 문중출신인 김좌진과 김우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밝혔다.

* 주요어: 김좌진, 아나키즘, 운남육군강무학교,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한족총연합회

1. 머리말

金宗鎭은 충남 홍성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홍성에서 3.1운동에 참여한 후 중국의 奉天으로 망명했다. 그는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친형 金淵鎭을 만났으며, 光韓團員들과 국내로 무기반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광한단원들이 발각되면서 북경으로 이동해 友堂 李會榮을 만났다. 김종진은 이회영의 소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申圭植을 만났으며, 신규식의 추천으로 唐繼堯 군벌이 운영하던 雲南陸軍講武學校에 입학했다. 김종진은 운남육군강무학교를 졸업한 후 상해에서 大韓僑民團의 義警隊에 참여했으며, 아나키스트 李乙奎·白貞基·鄭華岩 등과 교류했다. 그는 天津에서 이회영을 다시 만나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新民府에서 활동하던 族兄 金佐鎭을 찾아갔다. 김종진은 김좌진에게 아나키즘을 소개하고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이을규를 초빙해 1929년 7월 在滿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이하 재만무련)과 韓族總聯合會를 조직해 아나키즘운동을 전개했다.

김종진은 1920년대 후반 아나키스트들이 만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아나키즘운동의 선봉에 있었다. 그는 완전한 조직체로 장기적인 투쟁을 통해서 조국의 독립을 달성해야 하며, 투쟁의 최적지는 만주라고 여기고 있었다. 만주는 韓人들이 거주하고 있어 인적·물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만무련과 한족총연합회를 조직한 것도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아나키스트들이 추진했던 민족해방운동기지 건설사업의 일환이었다. 민족해방운동기지 건설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아나키스트들의 주요한 활동이었고, 김종진은 만주에서 이를 실천했던 것이다. 따라서 김종진은 신민부·재만무련·한족총연합회, 중국에서의 아나키스트의 활동과 이회영 관련 연구에서 자주 언급된다.¹⁾ 그러나 김종진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서술될 뿐이며 그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의 부진은 자료의 문제이다. 그가 독립운동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927년 10월 북만주에 도착해서 1931년 8월 암살될 때까지이다. 따라서 일제자료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료가 거의 찾아지지 않으며, 독립운동을 함께 한 이들의 회고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김종진에 관해서는 이을규가 1963년 편찬한 『是也金宗鎭先生傳』 남아 있다.²⁾ 『시야김종진선생전』은 김종진뿐만 아니라 아나키즘운동 연구에서 중요하게 인용되는 자료이다. 이을규는 1920년대 중반 상해에서 김종진을 만나 재만무련과 한족총연합회를 조직한 동지로 김종진의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시야김종진선생전』은 주요 자료로 볼 수도 있으나 아나키즘 관점에서 서술된 측면이 있으며, 회고록인 관계로 오류와 누락된 부분이 있기도 하다.³⁾

1)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명섭, 「우당 이회영의 아나키즘 인식과 항일독립운동」,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7(1),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2008; 김명섭, 「이회영의 중국 망명생활과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5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박결순, 「이회영과 이상설의 독립운동론과 독립운동 비교」, 『동북아역사논총』64, 동북아역사재단, 2019; 박환, 「新民府에 대한 一考察」, 『역사학보』108, 역사학회, 1985; 박환, 「韓族總聯合會의 결성과 그 활동」, 『한국사연구』52, 한국사연구회, 1986; 유영구, 「1930년 전후 滿洲地域의 民族運動過程에서 전개된 韓人아나키스트運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이호룡,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1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이밖에도 충남 홍성출신 독립운동가의 철학관련 연구에서 김종진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다(이종성, 「충청 내포지역 홍성출신 독립운동가의 철학적 이념과 사상의 유사성」, 『철학연구』140, 대한철학회, 2016.).

2) 李乙奎, 『是也金宗鎭先生傳』, 한흥출판사, 1963.

3) 『시야김종진선생전』은 1961년 김종진의 아들 金成漢의 요청으로 이을규가 편찬을 시작해 1963년 발간되었다. 이을규는 중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였고, 『시야김종진선생전』은 아나키즘의 관점에서 편찬되었다. 따라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기술했으며, 아나키즘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해가 개입된 측면이 있다.

본고는 김종진의 국내독립운동과 만주망명, 아나키즘의 수용과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종진의 가문에 주목했다. 그의 문중은 安東金氏 水北公派로 충남 홍성에서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었고, 김종진 외에도 金東鎭·金淵鎭·金宇鎭·金佐鎭 등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이들은 모두 김종진과 같은 鎭字行列의 族親으로 홍성의 갈산과 구항면 출신이며, 김종진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김연진은 만주망명과 이회영과 관계를 맺게 했으며, 김우진은 상해에서의 의경대 활동, 김좌진은 만주에서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김종진의 북만주지역 활동은 김좌진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는데, 그가 문중의 族兄이라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김종진의 국내독립운동은 3.1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홍성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주망명은 망명배경과 만주에서의 광한단 활동, 그리고 김종진과 이회영 가문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회영은 김종진의 독립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임에도 관계를 맺게 되는 배경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가 졸업한 운남육군강무학교의 수학과정을 통해 그의 졸업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한다.

아나키즘의 수용과정은 운남육군강무학교 졸업 후 상해에서 교유한 아나키스트들과 이회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김종진은 1924년 12월부터 상해에서 생활하면서 아나키스트들과 교유했으나 아나키즘을 수용하지는 않았고, 운남육군강무학교 졸업 후 상해에서의 활동은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신민부와 재만무련, 한족총연합회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단체의 조직과 활동, 이념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으나 단체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김종진의 역할이 조명받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 국내독립운동과 만주망명

1) 가계와 국내독립운동

金宗鎭은 1901년 12월 26일 충남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에서 金泳圭와 青松沈氏 사이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⁴⁾ 본관은 安東이며 호는 是也이다. 그의 가문은 10대조 水北公 金光炫이 吏曹參判을 역임한 후 홍성에서 거주하면서 세거하기 시작했고, 이후 후손들은 그의 호를 따서 안동김씨 水北公派라 한다. 김광현의 부친은 병자호란 당시 왕족을 호종하고 강화도로 피난갔다가 강화성이 함락되자 순절한 金尙容이며, 김광현의 숙부는 병자호란 당시 척화파의 거두였던 金尙憲이다. 이처럼 절의와 척화는 그의 문중의 전통이었다. 홍주의병과 파리장서운동을 주도한 金福漢이 수북공파 대종손이었던 것도 이러한 전통이 계승된 것이었다.⁵⁾

안동김씨 수북공파는 충남 홍성의 갈산과 구항면 일대에서 집성촌을 형성했던 명문가문이다. 김종진의 직계만 보더라도 6대조 金樂行은 刑曹正郎, 5대조 金履禕는 晉州牧使, 4대조 金有淳은 富平府使, 증조부 金寅根은 태인현감, 조부 金炳稷은 成均館大司成을 역임했다.⁶⁾ 홍성의 안동김씨 수북공파는 김종진·김복한 외에도 金東鎭·金淵鎭·金宇鎭·金佐鎭 등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김광현은 壽仁·壽民·壽賓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김동진·김연진·김우진·김좌진은 수빈의 9대손으로 김종진의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⁷⁾

김종진의 독립운동은 홍성지역 3.1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1919년 3월 7일 홍성장터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김종진이 참여한 만세운동은 홍성지역에서 전개된 최초의 3.1운동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⁸⁾ 그

4) 金泳圭는 청송심씨 사이에서 淵鎭·浩鎭·魯鎭·宗鎭·弼鎭 5형제를 두었다. 김종진은 넷째로 태어났으며, 10세 때 金學圭에게 출계했다(安東金氏大同譜所, 『安東金氏大同譜』 卷5, 농경출판사, 1984, 1181·1182쪽).

5) 金祥起, 「金福漢의 學統과 思想」, 『한국사연구』88, 한국사연구회, 1995, 78~79쪽.

6) 안동김씨대동보소, 앞의 책, 1179·1182쪽.

7) 위의 책, 958·960·968쪽. 김동진은 김좌진의 동생으로 1920년 국내에서 조직된 籌備團과 1925년 조직된 無空會에 참여한 후 만주로 망명해 신민부와 한족총연합회에 참여했다(이성우, 「籌備團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2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329쪽). 김연진·김우진·김좌진이 김종진의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은 후술함.

러나 홍성의 3월 7일 만세운동은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만세운동의 구체적 상황이 찾아지지 않으며, 일제의 기록에서도 검증이 되지 않는다. 3월 7일 만세운동에 대해서는 “홍성읍의 장터에서 수많은 군중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하였다. 이날의 詳報는 알 수 없으나 피검자 중에는 金宗鎭이 끼어 있었다. 이날 홍북면의 朴君相은 부상하여 고막이 터졌다”라는 정도이다.⁹⁾ 따라서 김종진의 3.1운동 참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김종진의 독립운동 뿐만 아니라 충남 홍성지역 3.1운동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김종진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홍성장터가 홍주면(현 홍성읍)의 장터인지 홍성지역의 장터인지 명확하지 않다. 홍성장터가 홍주면의 장터라 해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김종진은 구항면 출신으로 홍성장터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홍북면의 박상군도 참여했다. 그렇다면 3월 7일 홍주면의 만세운동은 홍성군의 면민들이 연합해 전개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 전개 과정을 볼 때 만세운동 초기 郡內의 여러 면이 연합해서 만세운동을 전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道長官報告綴』이나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등 일제의 기록에서도 3월 7일 만세운동과 관련된 기록은 찾을 수 없다.¹⁰⁾ 또한 김종진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개월 동안 구금되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

그런데 김종진의 3.1운동 참여 사실은 『시야김종진선생전』에도 기록되어

8)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81~82쪽.

9) 위의 논문, 81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3, 1973, 132쪽.

10)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충남에서는 1919년 3월 3일과 3월 6일 예산과 부여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忠南密第98號 鮮人不穩行動ニ關スル件」(1919년 3월 7일), 『도장관보고첩』; 「忠南密第98號 鮮人不穩行動ニ關スル件」(1919년 3월 7일), 『도장관보고첩』; 「高第6050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1919년 3월 7일),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김진호, 「예산지역의 3.1운동 전개와 의의」, 『충청문화연구』8, 충청문화연구소, 2012, 176쪽; 이양희, 「부여인의 3.1운동 전개와 천도교」, 『한국독립운동연구』6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44쪽). 일제의 보고문에서 홍성장터 3월 7일 만세운동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3월 3일과 6일 만세운동에 대한 보고가 상세한 반면, 3월 7일 대규모 시위가 누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홍주면에는 西部·結城·高道·廣川주재소를 관할하는 洪城警察署가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3월 7일 홍주면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고가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있다. 김종진은 '己未年 3월 7일 洪城場터에서 군중의 선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운동을 지휘했으며 현장에서 주동자로 日警에 被檢되어 數朔을 獄中에서 苦楚를 겪다가 同年(1919년:필자주) 6월말에 未成年이라하여 석방되었다'라는 것이다.¹¹⁾ 김종진의 3월 7일 만세운동 참여는 1962년 李丁奎가 작성한 그의 碑銘에도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¹²⁾ 따라서 김종진의 홍성지역 3.1운동 참여는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문제는 3.1운동 참여지점과 장소이다. 충남 홍성에서는 갈산·광천·구항·금마·은하·장곡·홍동·홍주·홍북면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김종진의 고향인 구항면에서는 4월 4일과 7일에 만세운동이 있었다.¹³⁾ 따라서 김종진은 4월 4일 만세운동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제 기록에 의하면 홍성에서는 1919년 4월 4일 만세운동이 있었다. 홍성경찰서 부근 4개 면에서 4월 4일 만세운동이 있었고, 만세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2명이 사망하였다.¹⁴⁾ 홍성경찰서 부근 4개면은 구항·금마·홍동·홍북면이었다.¹⁵⁾ 김종진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부상을 당한 박상군이 홍북면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종진은 4월 4일 시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종진은 4월 7일 구항면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구항면에서는 4월 7일 황곡리에서 李吉性和 黃文秀가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¹⁶⁾ 그런데 『시야김종진선생전』에 기록된 3월 7일을 음력으로 가정하고, 양력으로 전환하면 4월 7일이 된다. 그렇다면 김종진은 고향인 구항면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김종진이 홍성지역 3.1운동에 참여했다면 4월 4일이나 4월 7일에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⁷⁾

11) 이을규, 앞의 책, 5쪽.

12) 「是也金宗鎭同志碑銘」(李丁奎, 『又觀文存』, 국민문화부출판부, 2014, 217쪽).

13) 김진호, 앞의 논문, 80쪽.

14) 「高第10371號 獨立運動ニ關スル件(第39報)」(『朝鮮騷擾關係書類』).

15) 김진호, 앞의 논문, 82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3, 132쪽.

16) 위의 논문, 80쪽; 「이길성·황문수 판결문」(1919년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

17) 김종진이 3월 7일 홍성지역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독립운동사』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3, 132쪽)과 『시야김종진선생전』(이을규, 앞의 책, 5쪽), 「시야김종진동지비명」(이정규, 앞의 책, 217쪽)에 수록되어 있다. 『시야김종진선생전』과 「시야

김종진은 3.1운동에 참여한 후 서울로 올라와 中東學校速成科에 입학했다. 그는 서울시내 학교에 연락망을 구축하며 비밀활동을 전개하던 중 체포의 위기에 처하자 만주로 망명했다.¹⁸⁾ 그의 만주망명은 친형인 김연진의 영향이 컸다. 김연진은 奉天(현재 심양)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김종진은 이러한 소식을 접한 후 1920년 4월 봉천으로 망명한 것이다. 김종진은 만주로 망명하면서 그의 독립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 友堂 李會榮과 관계를 맺게 된다. 김연진은 당시 봉천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회영의 둘째형인 李石榮의 거처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⁹⁾ 따라서 김종진은 만주로 망명하면서 이석영과 연결되었고, 이회영과 관계가 맺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만주망명과 운남육군강무학교 수학

김종진은 봉천에서 김연진과 만났다. 김연진은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중 봉천으로 옮겨와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²⁰⁾ 김종진과 이회영의 관계는 김연진과 이석영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의 관계는 김연진이 봉천에서

김종진동지묘비명」을 작성한 李乙奎와 李丁奎는 형제이며, 김종진과 1920년대 중반부터 상해에서 함께 활동한 이들이다. 따라서 두 자료는 동일한 내용으로 여겨진다. 또한 『독립운동사』³은 1973년에 편찬된 자료이다. 따라서 『시아김종진선생전』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김종진이 참여한 3월 7일 홍성지역 3.1운동은 일제 자료뿐만 아니라 여타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김종진이 3월 7일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점, 4개월 동안 구금되었으나 미성년이라 석방되었다는 점도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1운동 당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4개월 동안 구금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당시 18세였던 김종진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석방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아김종진선생전』의 기록을 부정하기 어렵고, 김종진이 3.1운동 후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홍성지역 3.1운동에는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18) 이을규, 앞의 책, 5~6쪽.

19) 위의 책, 6~7쪽.

20) 위의 책, 7~8쪽. 『시아김종진선생전』에 의하면 김연진은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중 봉천으로 옮겨와 만주와 상해, 그리고 국내연락 책임을 맡고 있었다. 당시 김종진이 참여했던 단체나 활동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김연진의 구체적인 활동은 충남 홍성에서 조직한 무공회부터 찾아진다. 무공회는 1925년 10월 金東鎭·金聖坤·金昌植·金興善·孫在學·李斗星·李碧圭 등이 조직한 사상단체였다(장규식, 「해방 후 국가건설운동과 지역사회동향」, 『학림』16, 사학연구회, 1994, 91쪽; 김용달, 「일제하 홍성지역의 사회운동」, 『한국사학보』19, 고려사학회, 2005, 114쪽).

이석영의 거처에 근거를 두고 활동했다는 점 외에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들이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다만 두 가문이 모두 고종을 비롯해 조선왕실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회영 6형제의 만주망명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회영과 조선왕실과의 관계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헤이그특사 파견은 李會榮·李始榮·李東寧 등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상동청년회원들이 추진한 것이었다. 당시 헤이그특사 파견에 협조한 이들은 金尙宮·李容泰·李鍾浩·朴尙宮·安鎬瑩·沈相薰 등으로 알려져 있다.²¹⁾ 안호형은 이회영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김상궁은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의 姨姪女이기도 했다. 이회영의 아들 이규창은 安鎬瑩·趙南益·趙鼎九등이 헤이그밀사 파견의 조력자라고 했는데, 조정구는 흥선대원군의 사위이며, 고종의 매부였다.²²⁾ 조정구와 이회영은 사돈간이기도 하다. 이회영의 아들 圭鶴이 조정구의 딸이자 고종의 조카인 季珍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이회영이 1919년 李得年·閔泳達·洪增植 등과 함께 고종의 국외망명을 추진한 것도 이러한 왕실과의 관계를 이용해 추진한 것이었다.²³⁾

그런데 김종진과 김연진의 外祖父는 한말 고종의 최측근이었던 沈相薰이다.²⁴⁾ 심상훈의 모친은 閔致久의 둘째 딸로 흥선대원군의 부인과는 자매간이다. 흥선대원군은 심상훈의 이모부이며, 심상훈과 고종은 이종사촌이 된다. 따라서 심상훈은 1890년대부터 여흥민씨 들과 함께 대표적인 勤王的 인물이었다. 심상훈은 1897년부터 1906년까지 군부대신·탁지부대신·궁내부대신·경리원경·시종무관 등의 관직을 역임한 고종의 近臣이었다.²⁵⁾ 따라서

21) 尹炳奭, 『增補李相高』, 일조각, 1988, 64쪽; 李丁奎, 앞의 책, 42쪽; 李致源, 「광무황제의 헤이그특사-헤이그특사 파견논리와 구상을 중심으로-」, 『헤이그특사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218~219쪽.

22) 이규창, 『운명의 여신』, 클레버, 2004, 46쪽.

23) 박결순, 앞의 논문, 114쪽; 이규창, 앞의 책, 51~52쪽.

24) 김종진과 김연진의 모친은 청송심씨였고, 그녀의 부친은 忠肅公 沈相薰이며, 조부는 沈應澤이다. 또한 김연진의 장인은 宮內府 侍從을 역임한 趙重國이다(안동김씨대동보소, 앞의 책, 1181쪽).

25) 오영섭, 「고종측근 심상훈과 제천지역 의병운동과의 연관관계」, 『한국근현대사연구』3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36·38·41쪽.

김연진·김종진 형제와 이회영 가문과의 관계는 심상훈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김종진은 봉천에 머물면서 洪景植·李丙旭 등과 함께 국내로 무기를 반입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김종진의 활동은 1920년 2월 寬甸縣 香爐溝에서 조직된 광한단 활동이었다.²⁶⁾ 광한단은 한족회의 李時說·李浩源·玄益哲·玄正卿 등 소장파들이 국내에서 망명한 金觀聲·李春山·張明煥 등과 조직한 항일무장단체였다.²⁷⁾ 홍경직은 한말 판서·충청남도관찰사·궁내부특진관을 역임한 洪承憲의 아들로 1910년 한일강제병탄 후 부친을 따라 중국으로 망명했다.²⁸⁾ 그는 중국으로 망명한 후 한족회 간부로 활동하던 중 광한단에 참여한 후 이병욱과 함께 국내로 무기반입을 추진했던 것이다.²⁹⁾

김종진은 봉천에서 활동하던 중 洪景植을 만나 거사에 참여했다. 그의 임무는 국내로 반입할 무기를 奉天驛까지 운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거사는 봉천역에서 홍경식이 체포되면서 실패했으나 김종진은 체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수사망이 좁혀 오면서 봉천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1920년 가을 북경으로 활동지역을 옮겼다.³⁰⁾ 김종진의 북경행은 김연진과 이석영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김연진은 만주와 북경행을 고민하던 김종진에게 북경으로 갈 것을 권유했다. 김연진은 이석영의 거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회영이 있던 북경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이석영이 북경에 있는 이회영에게 김종진

26) 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5, 341쪽; 애국동지원호회, 『한국독립운동사』, 고려서림, 1994, 260쪽;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85, 52쪽.

27) 강진영, 「이회영의 민족운동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7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208~209쪽; 조준희, 「이시열의 민족운동과 대중교」, 『승실사학』28, 승실사학회, 2012, 192쪽; 양지선, 「李浩源의 在中獨立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10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0, 103쪽.

28) 『승정원일기』, 고종28년(1891년) 8월 30일조; 『고종실록』 광무5년(1901년), 6월 18일조; 김승학, 앞의 책, 765쪽; 애국동지원호회, 앞의 책, 487~488쪽.

29) 김승학, 앞의 책, 765쪽; 애국동지원호회, 앞의 책, 487~488쪽; 『동아일보』, 1924.11.13. (『京城에 統義府支部』).

30) 이을규, 앞의 책, 7쪽. 당시 광한단 활동으로 체포된 홍경식과 이병욱은 1921년 4월 26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과 2년 형을 선고 받았다(『洪景植受刑人名簿』(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일보』, 1924.11.13.(『京城에 統義府支部』).

을 소개하면서 이루어졌다.³¹⁾

김종진은 북경에서 이회영을 만났다. 김종진은 이회영으로부터 국내독립운동·서간도지역 독립운동·고종의 망명 추진 등을 듣게 되었고, 그의 도움으로 독립운동가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독립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자신의 缺陷을 찾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³²⁾ 김종진은 이회영과 만난 후 조국의 독립은 무력투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군사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회영은 김종진의 이러한 신념을 확인한 후 그를 상해에 있는 신규식에게 추천했다. 김종진은 1921년 1월 신규식을 찾아갔고, 그의 추천으로 1921년 4월 唐繼堯 군벌이 운영하는 雲南陸軍講武學校에 입학했다.³³⁾

운남육군강무학교는 중국 雲南省 昆明에 있었던 군사교육기관이었다. 운남육군강무학교는 1909년 雲南陸軍講武堂으로 개교했으며, 淸朝 新軍의 군사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1912년 운남육군강무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1928년까지 졸업생을 배출했다.³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대 초부터 韓人의 중국 군벌 군사학교 입교를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중국 군벌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申圭植·閔弼鎬·呂運亨·朴贊翊 등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며, 대표적인 인물은 신규식이었다. 그는 3.1운동 이전부터 운남군벌 당계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당계요의 지원으로 운남육군강무학교에 다수의 한인들을 입학시킬 수 있었다.³⁵⁾

김종진은 1921년 4월 昆明에 도착했고, 신규식의 추천서를 당계요에게 전달하고 특별입학 허가를 받았다.³⁶⁾ 김종진은 입교 당시 본명 대신 沈雄이라

31) 이을규, 앞의 책, 7쪽; 이정규, 앞의 책, 61쪽.

32) 이을규, 앞의 책, 10쪽.

33) 위의 책, 15~20쪽.

34)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132쪽; 裴淑姬, 「中國 雲南陸軍講武堂與韓籍學員-以『同學錄』的分析爲中心-」, 『중국사연구』56, 중국사학회, 2008, 239~241쪽. 기존 연구에서는 김종진이 수학한 군관학교에 대해 雲南講武學校, 雲南陸軍講武堂(學校) 등으로 서술했으나 본고에서는 김종진의 수학시기 학교명인 雲南陸軍講武學校로 하고자 한다.

35) 한상도, 앞의 책, 123~124쪽.

는 이름을 사용했다. 당시 중국군벌의 군사학교에 입교하는 외국인들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變姓名을 사용했다. 김종진은 북경에 도착한 후 비밀유지와 신분위장을 위해 심웅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沈은 모친인 청송심씨의 성을 차용한 것이며, 雄은 중국식 普通形 외字를 사용한 것이었다.³⁷⁾ 이을규는 김종진이 “教導隊 二年의 「코스」를 마치고 1923년 봄에 운남강무당에 16기로 입학했으며, 1925년 4월 졸업하고 같은해 12월 상해로 돌아왔다”고 하였다.³⁸⁾ 그러나 김종진의 운남육군강무학교 수학과 졸업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김종진은 1925년 7월 상해의 프랑스 조계지에서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다. 체포 당시 김종진은 자신의 이력을 “1921년 상해에 도착했으며 같은해 이곳에서 운남지방으로 떠나 운남강무학당을 졸업한 후 1923년 상해로 돌아왔고, 같은해 湖南의 尙德으로 가서 蔡鉅猷부대에서 복무한 후 1924년 12월에 상해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했다.³⁹⁾ 김종진이 운남육군강무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상해로 돌아왔다면, 1925년 4월에 운남육군강무학교를 졸업할 수 없다. 김종진은 1925년 1월, 상해에서 대한교민단의 의경대에 참여하기도 했다(후술). 그가 1925년 4월 운남육군강무학교를 졸업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의 의경대 활동은 운남육군강무학교를 2년만인 1923년 졸업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운남육군강무학교는 교도대와 정식사관 교육이 각각 2년과정이었으며, 운남육군강무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4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⁰⁾ 그런데 이러한 근거는 이을규의 『시야김종진선생전』을 근거로 한

36) 위의 책, 125쪽; 이을규, 앞의 책, 15~20쪽.

37) 이을규, 앞의 책, 20~21쪽.

38) 위의 책, 22·24·26쪽. 김종진은 운남육군강무학교 16기생이었다. 그런데 그가 18기생이라는 견해가 있다(한상도, 앞의 책, 48쪽). 운남육군강무학교는 교도대 과정(2년)과 정식사관교육(2년)으로 구분되는데, 김종진이 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을 경우 18기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운남육군강무학교의 기수는 입학을 기준으로 했는데, 졸업을 기준으로 보면서 생긴 문제로 여겨진다.

39) 「沈雄에 관한 건」·「체포된 韓人에 관한 건」·「韓人체포에 관한 건」·「심웅, 일명 金宗鎭 건에 대한 보고」(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0(임정편), 1991, 61~65쪽).

40) 한상도, 앞의 책, 132~133쪽.

다.⁴¹⁾ 이을규의 운남육군강무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다면, 독립운동가들의 운남육군강무학교 졸업이라는 것은 교도대나 정식사관 교육 중 하나의 과정(2년)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운남육군강무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통해서 확인된다. 운남육군강무학교 『同學錄』에는 沈雄(본명:金宗鎭(필자주))과 楊林(본명:金勳(필자주))이 16기생, 文一民·金武東(본명:金滢東(필자주))·李檢雲(본명:李哲浩(필자주))이 17생으로 수록되어 있다.⁴²⁾ 그런데 양림은 1921년 운남육군강무학교 16기생으로 입학해 1923년에 졸업했으며⁴³⁾ 17기생인 김형동은 1924년 9월 기병과를 졸업했다.⁴⁴⁾ 이들은 모두 2년 과정을 수료하고 운남육군강무학교를 졸업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인물이 대전 출신 金魯源이다. 그는 김종진의 동기생으로 운남육군강무학교 재학시기 가장 절친한 사이였으며, 김종진과 함께 졸업한 후 상해·무한·한구 등에서 동지규합을 했던 동지였다.⁴⁵⁾ 그는 1921년 金庸源·金泰源·金正哲 등과 함께 사천성 주석 楊森을 방문하고 육군군관학교에 입학했다.⁴⁶⁾ 김종진의 행적과 비교해 보면, 김노원이 1921년 입학한 육군군관학교는 운남육군강무학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노원은 1924년 2월 상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1925년 1월에는 상해에서 김형동과 함께 韓血團을 조직했다.⁴⁷⁾ 김노원이 1921년 운남육군강무학교를 입학해 4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41) 이을규, 앞의 책, 22·24쪽.

42) 배숙희, 앞의 논문, 245~246·248~249쪽.

43) 박창욱 편, 『조선족혁명렬사전』, 료녕인민출판사, 1983, 4~7쪽; 현룡순·리정문·허룡구 편, 『조선족백년사화』1, 거름, 1989, 152~154쪽; 한상도, 앞의 책, 125~126·133쪽.

44) 「金武東畢業證書」(운남육군강무학교 기병과, 1924년 9월(국가보훈처소장(사본)). 김무동의 「필업증서」는 운남육군강무학교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배숙희, 앞의 논문, 245쪽). 17기생인 李檢雲(본명:李哲浩)은 1922년에 입학해 1923년 10월에 졸업했다(한상도, 앞의 책, 134쪽; 조선총독부경무국,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 1934, 292쪽; 조선총독부경무국, 「軍官學校ノ真相」(한홍구·이재화 편,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3, 경인문화사, 1988, 305쪽).

45) 이을규, 앞의 책, 23·31~41쪽.

46) 柳曦, 「剛山事實記」, 1934(김상기, 『애국지사 강산 김용원』, 경인문화사, 2004, 57~58쪽).

47) 「要視察朝鮮人上海渡航者名簿異動ニ關スル件(1924.02.05.)」·「在上海畿湖派不逞鮮人ノ組織セル韓血團ニ關スル件(1925.02.12.)」·「山縣答禮使ニ對スル加害陰謀計劃ニ關スル件(1925.02.13.)」(『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 在上海地方(5)』).

이처럼 김노원·김형동·양림을 보면 운남육군강무학교의 졸업은 2년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종진은 1921년 16기생으로 입학했으며, 1923년에 졸업했다고 보아야 한다.⁴⁸⁾ 이는 1921년 운남육군강무학교에 입학해 1923년 졸업하고 상해로 돌아왔다는 김종진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운남육군강무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12월 상해로 돌아왔다는 이을규의 기록은 1924년 1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아나키즘의 수용과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1) 상해에서의 활동과 아나키즘 수용

김종진은 운남육군강무학교를 졸업하고 1924년 12월부터 상해에서 활동했다. 그는 상해에서 활동하면서 李始榮·金九·趙琬九·李東寧 등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유했다.⁴⁹⁾ 그는 임시정부 요인과 교유하면서 大韓僑民團의 義警隊에 참여했다. 대한교민단은 1918년 동제사의 청년들이 조직한 上海高麗僑民親睦會가 上海大韓人民團·上海居留民團·上海大韓人居留民團·大韓僑民團으로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대한교민단은 상해지역 한인자치기관으로 조직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독립운동단체의 역할을 담당했다.⁵⁰⁾

의경대는 대한교민단이 1923년 12월 상해지역 동포사회의 치안유지를 위해 조직한 경찰조직이었다. 의경대는 ‘치안을 보안하고 친일분자의 不義한

48) 裴淑熙는 雲南省과 昆明市 당안관과 운남성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운남육군강무당 『同學錄』에 수록된 한국인 학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16기생은 1922년, 17기생은 1923년에 입학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운남육군강무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2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1922년과 1923년에 입학한 16기와 17기생이 1923년과 1924년에 졸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김종진·양림·김노원은 16기생이면서 1921년에 입학했고, 17기생인 이호철은 1922년에 입학했다. 이를 통해 보면 16기생은 1921년, 17기생은 1922년에 입학했으며, 수학과정은 2년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종진이 운남육군강무학교의 교도대와 정식사관 교육 중 어떠한 과정을 졸업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두 과정 중 하나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은 분명하다.

49) 이을규, 앞의 책, 26쪽.

50) 김희곤, 「上海 大韓人民團의 成立과 獨立運動」,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 탐구당, 1992, 820~830쪽.

행동을 경계·懲治한다'는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의경대의 지휘는 대한교민단장이 맡았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김구가 고문으로 추대되었다.⁵¹⁾ 의경대는 '조사업무·인사검증·위생사무·친일파처단' 등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한인교포들의 치안유지를 담당했다. 김종진은 1925년 1월 黃蔡性·金宇鎭·林兢鎬·崔傑·鄭炳九 등과 의경대에 참여했다.⁵²⁾

김종진의 의경대 활동과 관련해 주목되는 인물은 金宇鎭이다. 그는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출신으로 안동김씨 수북공파 문중의 族兄이었다. 그는 京城工業傳習所를 수료하고, 1919년 3월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른 후 상해로 망명했다. 그는 상해로 망명한 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과 국무원 서기로 근무했다.⁵³⁾ 따라서 김종진이 대한교민단의 의경대에서 활동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은 미루어 짐작된다. 이처럼 김종진이 상해에서 교유했던 이들이 임시정부 요인들이었고 의경대의 성격으로 볼 때,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활동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김종진은 상해에서 활동하던 아나키스트들과도 만났다. 그는 김구를 방문했을 때 白貞基를 만났고, 백정기를 통해 李乙奎·李丁奎 등을 만날 수 있었다.⁵⁴⁾ 이들과의 만남은 김종진이 아나키즘을 접하는 계기였다. 이들은 1924년 4월 북경에서 이회영과 함께 在中國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을 결성했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였다. 이들은 1924년 9월경부터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김종진은 이들과 교유할 수 있었다.⁵⁵⁾ 당시 김종진은 아나키즘을 이해하

51) 위의 논문, 835쪽; 경찰청·한국근현대사학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활동의 의의와 그 계승·발전에 관한 연구』, 경찰청, 2018, 64~67쪽; 『동아일보』, 1923.12.18.(<上海에 義警新設>).

52) 「在上海不逞鮮人ノ近情(1925.02.13.)」(『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 在上海地方(5)』); 경찰청·한국근현대사학회, 앞의 책, 69~71쪽. 당시 김종진과 의경대에 참여한 이들은 黃蔡性·金宇鎭·金宗鎭·林兢鎬·崔傑·鄭炳九·崔忠信·南忠烈·全日·朴英九·林得鳳·金信·李花天·金成得·朴桂千·姜景善·邊一光·金千鳳·鄭求一 등이다.

53) 국가보훈처, 『해외의 독립운동사료(XVII)』, 국가보훈처, 1993, 250~252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4, 1973, 162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9, 1975, 143~144·954쪽.

54) 이을규, 앞의 책, 28~29쪽.

55) 오장환, 「李丁奎(1897~1984)의 무정부주의운동」, 『사학연구』49, 한국사학회, 1995, 188~190쪽; 박결순, 「1920년대 北京의 韓人 아나키즘운동과 의열투쟁」, 『동양학』54, 동

고 아나키스트들이 만주동포를 조직화해 독립운동 기반을 다지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고 한다.⁵⁶⁾ 그러나 김종진은 아나키스트들과 교유했으나 아나키즘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은 김종진의 행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진은 아나키스트들과 교유하면서 呂運亨被襲事件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여운형피습사건은 1925년 12월 11일 김종진·백정기 등이 여운형을 찾아가 권총으로 위협한 사건이다.⁵⁷⁾ 이들은 여운형이 1925년 7월 亞洲民族協會 집행위원인 중국인 吳山이 亞細亞民族大會 개최를 위해 주최한 다과회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중국인 오산이 친일적 인물이고 다과회는 상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추진했다는 것이다.⁵⁸⁾ 당시 여운형은 소련의 타스통신사에서 근무하면서 소련정부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풍문도 있었다.⁵⁹⁾ 그러나 김종진은 여운형피습에 반대했다. 여운형의 행적은 풍문임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의 반대 이유는 표면적인 것이었고, 아나키스트들의 행동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었다. 그는 아나키스트들의 암살·파괴 활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

양학연구소, 2013, 116~117쪽.

56) 이을규, 앞의 책, 29~30쪽.

57) 여운형 피습사건은 1925년에 있었던 '여운형구타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여겨진다. 여운형구타사건은 朴熙坤·朴永浩·金必烈 등이 1925년 12월 03일 새벽에 여운형을 찾아가 철제곤봉으로 집단구타를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여운형은 혼절했고, 이를 저지하던 가족들이 부상을 입었다(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283~285쪽). 여운형구타사건은 12월 3일에 발생했고 참여인원은 7명이었다. 그런데 여운형피습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를 보면, 12월 11일 청년 4명이 육혈포로 여운형을 쏘았다고 한다(『시대일보』, 1925.12.17.〔呂運亨氏中傷說〕). 두 사건이 발생한 날짜가 다르고, 참여인원과 방법이 다르다. 또한 이을규는 김종진·백정기·다물단원 李某가 "여운형에게 拳銃의 一擊을 가하였으나 여운형이 탈출해 실패했다"라고 하였다(이을규, 앞의 책, 30쪽). 따라서 여운형 피습사건은 같은 달에 있었던 여운형구타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여운형구타사건과 구별하기 위해 여운형피습사건으로 하자 한다.

58) 이을규, 앞의 책, 30쪽. 여운형구타사건은 1924년 여운형·안창호 등이 대한통의부와 연계해 전개한 대통일운동에 반감을 가진 반통의부인 박희곤 등이 전개한 것이었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는 여운형이 다과회에 참여해 일본인과 접촉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윤대원, 앞의 책, 283·285쪽).

59) 「呂運亨被毆打事件(1925.12.14.)」(『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 在上海地方(5)』).

는 부분이다. 여운형은 대한교민단을 설립하고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며, 김종진이 의경대에서 활동할 당시 단장이기도 했다.⁶⁰⁾ 김종진은 이러한 이유로 여운형 피습에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¹⁾

김우진의 영향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우진은 여운형과 함께 1920년 中韓互助社에 참여했으며, 1925년에는 고려공산당원이었다는 기록이 있다.⁶²⁾ 고려공산당 상해지부는 1922년 해체되었기 때문에 당원일 수는 없으나 김우진과 여운형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김우진이 上海靑年同盟會의 임원이었다는 것이다. 아나키즘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의열단은 민족주의·공산주의·아나키즘에 따라 노선공방을 벌였다. 이러한 공방은 의열단에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1924년 4월 金尙德·尹滋英·趙德進 등이 상해청년동맹회를 조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상해청년동맹회는 1924년 10월 「선언서」를 발표했는데, 의열단은 「선언서」가 자신들의 암살·파괴 활동을 비판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폭행하고 비방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⁶³⁾

김우진은 상해청년동맹회와 의열단이 이와 같은 공방을 벌이던 시기에 상해청년동맹회 후보감찰위원이었다.⁶⁴⁾ 김우진이 의열단의 암살·파괴 활동에 반대했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해청년동맹회와 의열단의 노선 공방은 아나키즘과 공산주의가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김우진은 적어도 아나키즘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인

60) 김희곤, 앞의 논문, 828쪽.

61) 이을규는 여운형이 左傾一派로 虛偽와 假裝의인 인물이며, 김종진은 이러한 여운형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고 하였다(이을규, 앞의 책, 28쪽). 그러나 이강훈은 김종진이 상해에서 민족진영뿐만 아니라 청년총동맹의 呂運亨과 의열단의 柳子明 등과 만나 혁명이론을 교환했다고 하였다(이강훈, 『항일독립운동사』, 정음사, 1974, 101쪽).

6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5, 954쪽; 「上海ニ於ケル鮮人共產黨(1923.04.30.)」(『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 鮮人ト過激派(4)』).

63) 김영범, 『한국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1997, 126~132쪽; 최선웅, 「1924~1927년 上海 청년동맹회의 통일전선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44,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198~203쪽.

64) 「逮捕スベキ不逞鮮人連名簿(1925.01.29.)」·「在上海不逞鮮人ノ近情(1925.02.13.)」(『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 在上海地方(5)』).

다. 살펴보았듯이 김우진은 김종진이 상해에서 활동하던 당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김종진도 아나키스트들의 활동에 동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이을규가 “김종진이 여운형피습사건 이후 아나키스트와 친하게 되었지만, 사상적으로는 거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⁵⁾ 김종진은 아나키스트들과 교유하며 아나키즘을 접했으나 이를 수용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김종진이 여운형피습사건 이후 상해를 떠나 동지규합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김종진은 1926년 4월부터 南京·漢口·武昌 등을 여행하며 동지규합에 주력했다. 그의 동지규합에는 운남육군강무학교 동기생인 金魯源도 동행했다.⁶⁶⁾ 그러나 이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중국 국민당정부 北伐를 시작하면서 내전을 시작했고, 내전의 혼란속에서 동지들을 규합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지규합이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었고 목숨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김종진은 이러한 상황에서 北伐軍의 訓練官으로 참여하기도 했다.⁶⁷⁾ 그러나 동지규합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만주행을 선택했다. 김종진의 만주행은 이미 운남육군강무학교를 졸업하면서 계획된 것이었다.⁶⁸⁾ 그는 완전한 조직체로 장기적인 투쟁을 통해 독립을 달성해야 하며, 투쟁의 최적지는 만주라고 여기고 있었다. 만주는 韓人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적·물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지리적으로도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종진은 만주로 향하던 중 천진의 이회영을 찾아갔다. 그는 상해에서 아나키스트들과 교유하면서 이회영이 아나키스트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회영 방문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만주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회영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 김종진은 만주에서 새롭게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그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자 했던 것이다. 둘째는 아나키즘에 대한 의문이었다. 김종진은 상해에서 아나키스트들과 교유하

65) 이을규, 앞의 책, 31쪽.

66) 위의 책, 23·24쪽.

67) 위의 책, 37쪽.

68) 위의 책, 26쪽.

면서 아나키즘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나키즘이 만주항일투쟁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방략으로서 유용한 사상인지를 확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회영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김종진은 이회영과 한달여 정도 토론을 벌였다. 그가 이회영을 찾아간 것이 1927년 9월 중순이고, 다음달 하순에 만주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토론의 핵심은 아나키즘이었다. 이회영은 김종진에게 아나키즘과 아나키스트가 취해야 할 행동 등 자신이 생각하는 아나키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아나키즘 관점에서 독립된 조국의 이상적인 모델도 제시했다. 김종진은 아나키즘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가 “무정부주의의 방법론인 自由聯合의 이론은 空疎해서 우리와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이론으로는 싸울 수 없다”라는 질문이 이를 말해준다.⁶⁹⁾ 그의 질문은 군대와 같이 강력한 규율을 가진 조직체로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회영은 “모든 운동자의 사상이 어떻든 간에 실제로는 무정부주의의 자유연합 이론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며, 수 많은 독립운동단체와 조직이 생겼지만 이러한 단체와 조직도 단원들의 자유사상에 의한 것이지 어떠한 강제나 복종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목적이 방법과 수단을 규정하는 것이지 방법과 수단이 목적을 규정할 수 없고,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은 자유와 해방을 탈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회영은 아나키즘이 자유와 해방, 그리고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상이며, 독립운동의 가장 유용한 사상임을 역설했다.⁷⁰⁾ 김종진은 이회영과의 토론을 통해 아나키스트가 되었다. 그는 아나키즘이 독립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유용한 사상이며, 아나키즘운동이 곧 독립운동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다.

69) 위의 책, 43쪽.

70) 위의 책, 43~46쪽. 김종진과 이회영의 토론 내용은 『시야김종진선생전』의 「友堂先生訪問과 思想轉換 및 北滿行」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덕일(『아나키스트 이회영과 젊은 그들』, 웅진닷컴, 2001, 127~134쪽)과 김명섭(『자유를 위해 투쟁한 아나키스트 이회영』, 역사공간, 2008, 171~180쪽)의 저서에 자세한 분석이 있어 참조된다.

2)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과 한족총연합회 조직

김종진은 이회영을 만난 후 1927년 10월 하순 북만주 海林에 도착했다. 그가 찾아간 인물은 신민부에 참여하고 있던 홍성 갈산 출신의 族兄 金佐鎭이었다. 신민부는 1925년 3월 북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들이 통합해 설립한 단체였다.⁷¹⁾ 김종진이 북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김좌진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는데, 그가 안동김씨 수북공파 문중의 族兄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김종진은 1927년 李達·金夜燁 등과 함께 黑友聯盟을 조직해 強權主義를 배격하고 無政府主義를 선전하는데 주력했다.⁷²⁾ 그가 북만주에 도착한 시점이 1927년 10월 하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만주에 도착한 후 곧바로 흑우연맹을 조직했다고 할 수 있다. 김종진은 1927년 11월 중순 아나키즘에 입각한 경제공동체로서 농촌자치 조직과 교육훈련에 관한 방안 등을 포함한 「滿洲를 根據로 한 韓國民族解放運動의 基本計劃案」(이하 계획안)을 작성해 김좌진에게 제시했다.⁷³⁾ 계획안은 屯田養兵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흑우연맹의 조직이 계획안을 실천하기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북만주에 도착하면서 곧바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아나키즘 운동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김종진은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북만주지역 동포들의 생활실태와 의식정도를 파악할 것을 건의했다. 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동포들의 상황과 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좌진은 실태조사를 마친 후 계획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종진은

71) 신민부 창립일자와 장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박환은 신민부에 참여했던 이강훈의 증언에 따라 1925년 3월 10일 영안현 영안성에서 창립된 것으로 본다(박환, 앞의 논문, 1985, 90쪽). 이숙화는 일제의 기록과 신민부 창립에 참여했던 崔昌益과 崔正浩의 신문기록을 바탕으로 1925년 3월 15일 목릉현 磨刀石에서 창립된 것으로 본다(이숙화, 「1920년대 大衆敎育세력과 北滿洲지역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6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143~145쪽).

72) 이호룡, 앞의 논문, 287쪽; 林友, 「在中國朝鮮無政府主義運動 概況」 『흑색신문』29호(1934.06.30.) 「在中國朝鮮無政府主義運動 概況」에는 김종진이 조직한 단체가 暴友聯盟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호룡은 暴友聯盟은 黑友聯盟의 오류이며, 흑우연맹은 1928년 조직되는 北滿韓人青年聯盟의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73) 이을규, 앞의 책, 63쪽; 이호룡, 앞의 논문, 286쪽.

1928년 1월부터 密山·寧安·五常·額穆·額穆·敦化·安圖·長白·撫松·延吉·汪清 등 만주 대부분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1928년 8월 해림으로 돌아왔다. 그는 실태조사 중 羅仲昭·白鍾烈·吳祥世·黃學秀 등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다수의 독립운동가를 만났으며, 김좌진의 대변자로서 동포들을 위무하고 독립의식을 고취하기도 했다.⁷⁴⁾ 김중진은 북만주지역 동포들의 궁핍한 생활, 토착지주와 자본가의 수탈, 일제와 공산주의자로부터의 위협,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의 상황 등을 보고했다.

김좌진은 보고를 받은 후 김중진에게 계획안에 따라 신민부 개편을 의뢰했다. 김좌진이 신민부를 개편하고자 했던 것은 공산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1920년대 중반부터 북만주지역에 확산된 공산주의는 민족주의 진영을 위협하고 있었다. 신민부는 관할구역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의무금을 징수하고 징병제를 실시했다. 동포들은 중국인 지주의 횡포와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신민부를 지원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공산주의는 이러한 정세를 이용해 세력을 크게 확장했던 것이다. 신민부 내부의 문제도 있었다. 신민부는 1928년 1월 중앙집행위원장 金赫, 경리부장 俞民植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체포되었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軍政派와 民政派로 나뉘어 내분을 겪고 있었다.⁷⁵⁾ 김좌진은 군정파를 이끌며 무장투쟁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민정파는 자치에 주력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김좌진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민부를 개편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민부 개편에는 문제가 있었다. 신민부는 대중교를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 단체였다.⁷⁶⁾ 김중진은 김좌진에게 아나키즘에 대해 설명하고 아나키즘이 공산주의 침투와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며, 독립운동의 이념과 투쟁방략으로써 가장 유용한 사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관내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나키스트들을 초빙해 신민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득했다.⁷⁷⁾ 김좌진은 이들의 초빙을 수락했고, 김중진은 이회영과 이을규의 초빙을 추진했

74) 위의 책, 64~71쪽.

75) 박환, 앞의 논문, 1985, 106~107쪽.

76) 위의 논문, 114~116쪽; 이숙화, 앞의 논문, 145~147쪽.

77) 이을규, 앞의 책, 80~81쪽.

다. 그 결과 1929년 1월 남경에서 활동하던 이을규가 길림에 도착했고, 김종진은 같은해 3월 이을규·柳林과 함께 해림에 도착했다.⁷⁸⁾

김좌진은 당시 신뢰할 수 있는 참모가 필요했고 김종진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신민부 군정파와 민정파는 별도의 본부를 설치하고 북만주 지역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1928년 10월에 발생한 賓州事件으로 군정파와 민정파는 적대관계까지 이른 상황이었다.⁷⁹⁾ 이러한 상황에서 김좌진은 참모가 많지 않았다. 이강훈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김좌진의 주변에는 정세를 판단하고 보좌할 인물이 많지 않았으나 姜寅秀·金野雲·金宗鎭·李達·李鵬海·李乙奎·李俊根·伯純·嚴舜奉 등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였다.⁸⁰⁾ 아나키스트 이강훈의 회고이지만 당시 아나키스트들이 김좌진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김종진의 역할이 작용한 것이었고, 김좌진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 김좌진에게 族弟이며 은남육군강무학교를 졸업한 김종진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김종진이 民族唯一黨在滿策進會(이하 책진회)에 신민부대표로 참여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김좌진은 1928년 12월 길림에서 革新議會를 조직했다. 혁신의회는 3부(참의부·정의부·신민부) 통합회의가 결렬되자 신민부 군정파와 참의부·정의부의 일부가 연합해 조직한 단체이다. 혁신의회는 책진회를 조직해 민족유일당 운동을 촉진하고자 했다. 김종진은 혁신의회 조직 당시 김좌진의 요청으로 동행했으며, 김좌진과 함께 신민부 대표로 책

78) 위의 책, 85쪽. 김종진은 1929년 1월 길림에서 만주로 초빙한 이을규를 기다리던 중 남경·한구·무한 등지에서 동지규합 중 만났던 아나키스트 유림을 우연히 만났다. 김종진은 김좌진이 인재가 필요하고 신민부군정파가 연합하기를 원한다고 유림을 설득했다. 따라서 中東線 일대에서 아나키즘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이을규·柳林과 함께 1929년 3월 해림에 도착했다(위의 책, 83~84쪽).

79) 정원옥, 「재만독립운동단체의 민족유일당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4, 1988, 328~330쪽. 빈주사건은 1928년 10월 신민부 군정파가 빈주에서 회의를 하던 민정파와 다수의 동포를 사살하고 중경상을 입힌 사건이다(이현주, 『1920년대 재중항일세력의 통일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33쪽).

80) 이성우, 「白樓 姜寅秀의 생애와 독립운동」, 『세계역사와 문화연구』52, 한국세계문화학회, 2020, 162쪽.

진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⁸¹⁾ 혁신의회는 1929년 5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고 책진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했으나 임원들이 자신들의 근거지로 돌아가면서 별다른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했다.⁸²⁾ 김종진도 1929년 1월 이을규를 만나 같은 해 3월 해림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아, 책진회에서는 별다른 활동을 전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좌진은 아나키즘의 수용에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김종진과 함께 해림에 도착한 柳林과의 토론에서 엿볼 수 있다. 유림은 공산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나키즘을 제시했으나 김좌진은 주의나 사상으로 해결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유림은 김좌진이 아나키즘의 수용에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자 신민부 참여를 거부하고 길림으로 돌아갔다. 유림은 공산주의와 연합하는 것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김좌진이 공산주의와의 연합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⁸³⁾

김좌진은 공산주의에 대해 적대감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의 연합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소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朴寧熙를 블라디보스톡에 파견하기도 했었다.⁸⁴⁾ 이러한 행적을 볼 때 당시 김좌진은 공산주의와의 연합도 고려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민부가 내분을 겪고 있고 3부 통합이 결렬된 상황에서 아나키즘을 수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었다. 신민부의 단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아나키즘의 수용은 또다른 파벌이 생길 수 있고, 대종교와 민족적 성향의 신민부 군정파와 또다른 갈등요인이 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김종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9년 7월 김야운·엄순봉·이강훈·이달·이봉해·이을규·이준근 등과 함께 在滿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이하

81) 이을규, 앞의 책, 83쪽;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국역고등경찰요사』, 선인, 2010, 237쪽. 신민부 대표로 책진회에 참여한 인물은 金佐鎭·黃學秀·金是也(金宗鎭)·崔灝·鄭信이었으며, 김좌진은 金東三과 함께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정원옥, 앞의 논문, 332쪽).

82) 정원옥, 앞의 논문, 333쪽.

83) 김희곤, 「巨洲 柳林의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18,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81~82쪽.

84)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앞의 책, 225쪽; 유영구, 앞의 논문, 65쪽; 이성우, 「劍秋 朴寧熙의 독립운동배경과 항일무장투쟁」, 『대구사학』142, 대구사학회, 2021, 125쪽.

재만무련)을 조직했다. 재만무련은 김종진과 이을규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아나키즘 단체였다.⁸⁵⁾ 김종진이 재만무련을 조직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독립운동의 근거지 마련이었다. 그는 항일투쟁의 최적지는 만주라고 여기고 있었고, 아나키즘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나키즘 단체의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이론가가 필요했다. 이회영과 이을규를 가장 먼저 초빙하려 했던 것도 이와같은 이유였다. 따라서 이을규가 북만주에 도착하면서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졌고, 그와 함께 재만무련을 조직한 것이다.

둘째는 신민부 군정파와의 연합을 위해서였다. 아나키스트들은 북만주 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민부 군정파와의 연합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이념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김좌진의 아나키즘에 대한 인식이 대표적이었고, 아나키스트들은 신민부 군정파에게 연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김종진과 이을규는 공산주의에 주목했다. 김종진·이을규·유림이 해림에 도착한 후 김좌진과 토론한 주제는 공산주의에 대한 대처방법이었다. 따라서 재만무련은 “우리는 在滿同胞들의 抗日反共思想 啓蒙 및 生活改革의 啓蒙에 獻身한다”·“우리는 抗日民族電線에서 民族主義者들과는 友軍的인 協調와 協同作戰의 義務를 갖는다”라는 강령을 채택해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민족주의와 연합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⁸⁶⁾

재만무련의 이러한 강령채택은 주효했다. 김좌진은 재만무련의 강령을 보고 “우리(신민부군정파; 필자주)와 그들이(재만무련;필자주) 앞으로 表裏가 되고 異身同體가 되어 混亂과 摩擦이 없이 一致協力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教育과 思想啓蒙 生活改善의 指導는 聯盟에서 말고 연맹원은 개편하는 우리

85) 박환, 앞의 논문, 1986, 187~192쪽; 이을규, 앞의 책, 88쪽. 이을규는 재만무련의 결성일을 1929년 7월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호룡은 이을규·유림이 해림에 도착한 1929년 3월 하순에서 7월 21일 사이에 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김좌진이 신민부가 개편되면서 재만무련원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보아 재만무련은 한족총연합회 결성 일인 1929년 7월 21일보다 상당기간 앞서 결성되었을 것으로 본 것이다(이호룡, 앞의 논문, 288쪽).

86) 이을규, 앞의 책, 89쪽.

조직에 전원 참가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신민부와 재만무련의 연합을 추진했다.⁸⁷⁾ 이에 따라 재만무련과 신민부 군정파는 1929년 7월 韓族總聯合會를 결성했다. 한족총연합회는 신민부 군정파가 아나키즘을 수용해 조직되었으며, 아나키스트들은 간부진으로 참여했다.⁸⁸⁾

그러나 한족총연합회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었다. 한족총연합회는 재만무련의 김종진과 이을규, 신민부 군정파의 김좌진의 의지에 의해 조직된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민부 군정파는 공산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아나키즘과 재만무련을 수용한 것이었고, 재만무련은 만주에서의 운동기반 확보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민부 군정파는 김좌진의 지도력으로 재만무련과 연합한 것인데, 김좌진 조차도 아나키스트가 된 것은 아니었다.⁸⁹⁾ 따라서 한족총연합회는 김종진·김좌진·이을규의 부재시 해체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1930년 1월 김좌진이 공산주의자 朴尙實에 의해 암살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⁹⁰⁾ 한족총연합회는 김좌진의 암살이 공산주의자들이 자행한 것으로 여겼고 배후로 지목된 金奉煥을 처단하면서 공산주의와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한족총연합회는 김좌진이 암살되자 부위원장 權華山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권화산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을뿐 실질적인 지도자는 김종진과 이을규였다.⁹¹⁾ 이러한 점은 김종진이 한족총연합회의 총회를 주관하고, 이을규가 김좌진의 장례 책임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⁹²⁾ 이를 통해 보면 재만무련은 김좌진 사망 후 한족총연합회를 주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재만무련이 한족총연합회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북경

87) 위의 책, 90쪽.

88) 박환, 앞의 논문, 1986, 193쪽.

89) 이강훈, 앞의 책, 120쪽.

90) 김좌진 암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公道珍·李福林으로 알려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소속의 朴尙實이 실행한 것은 확실하다. 김좌진의 암살에 대해서는 박창욱(『김좌진 장군의 신화를 켜다』, 『역사비평』24, 역사비평사, 1994)과 박영석(『백야 김좌진 장군 연구』, 『국사관논총』51, 국사편찬위원회, 1994) 논문 참조.

91) 이강훈, 앞의 책, 128쪽.

92) 이을규, 앞의 책, 101~102쪽.

에서 무정부주의자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 회의)가 소집되었기 때문이다.⁹³⁾ 대표자회의는 상해에서 활동하던 申鉉商이 1930년 3월 충남의 湖西銀行에서 58,000원을 탈취해 북경으로 돌아오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아나키스트들이 자금의 사용방법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재만무련에서는 김종진과 이을규를 대표로 파견했다. 대표자회의는 1930년 4월 개최되었고, 탈취한 자금은 만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족해방운동기지 건설에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김종진과 이을규가 만주독립운동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회영이 지원한 결과였다.⁹⁴⁾ 그러나 일본영사관과 결탁한 중국 경찰의 습격을 받아 김종진·신현상·유기석·이을규·최석영 등 참석자 대부분이 중국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중국 국적의 유기석의 노력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⁹⁵⁾

김종진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해림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을규가 1930년 9월 자금모집차 福建으로 향하던 중 체포되면서 위기를 맞았다.⁹⁶⁾ 김종진은 재만무련 총회를 개최해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는 아나키스트를 초빙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아나키즘의 이론가였던 이을규의不在를 해결하고 재만무련 및 한족총연합회를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30년 10월 백정기·정화암·金芝江·楊如舟 등 다수의 아나키스트들이 해림에 도착했다.⁹⁷⁾ 이들이 도착하면서 한족총연합회가 추진했던 교육사업·사상계몽·생활개선 등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아나키스트들이 직접 동포

93) 당시 개최된 회의 명칭에 대해서는 ‘無政府主義者代表者會議·在中國無政府主義者大會·無政府主義者東洋大會’ 등 자료마다 차이가 있다(이성우, 「一篇 申鉉商의 독립운동과 湖西銀行 사건」, 『대구사학』133, 대구사학회, 2018, 299쪽). 본고에서는 이을규의 기록에 따라 무정부주의자대표자회의로 하고자 한다(이을규, 앞의 책, 101쪽).

94) 이성우, 앞의 논문, 2018, 301~303쪽.

95) 당시 대표자회의에 참석했던 이들 대부분이 체포되었으나 중국 국적을 갖고 북경시에 근무하던 유기석의 노력으로 모두가 석방되었다. 그러나 신현상과 최석영은 일제가 호서는 행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다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다. 호서는행사건과 무정부주의자대표자회의에 대해서는 이성우(위의 논문, 305~306쪽) 참조.

96) 이을규, 앞의 책, 112쪽; 『조선일보』, 1931.03.08. (『海外活動인 아나키스트 李乙奎 檢査局送致』).

97) 정화암, 『이 조국 어디로 갈것인가』, 자유문고, 1982, 118~119쪽; 이을규, 앞의 책, 113쪽; 이호룡, 앞의 논문, 300쪽.

들과 생활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였다.⁹⁸⁾

아나키스트들이 한족총연합회를 주도하면서 민족주의계열은 1931년 2월 韓族農務聯合會와 韓族自治聯合會를 조직했다.⁹⁹⁾ 민족주의 계열이 한족총연합회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족총연합회가 갖는 태생적 한계였고, 김좌진이 사망하면서 표면화된 것이었다. 결국 1931년 7월과 8월 한족총연합회를 이끌고 있던 金野雲·金宗鎭·李俊根이 암살되면서 한족총연합회는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이들의 암살은 공산주의자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족총연합회에서 활동했던 이을규와 정화암의 회고 때문이다.¹⁰⁰⁾ 그러나 김종진을 암살한 朴來春·李白虎·李益和의 행적을 보면 아나키스트와 민족주의자의 갈등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¹⁰¹⁾ 한족농무연합회는 주도권 문제가 발생했고 박내춘은 韓族同盟會, 강운산은 농민당을 조직해 대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종진이 강운산의 농민당과 연합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1931년 8월 박내춘계열에서 김종진을 암살한 것이다.¹⁰²⁾ 따라서 김종진의 암살은 김좌진 사망 후 한족총연합회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⁰³⁾ 김종진이 암살되면서 아나키스트

98) 정화암, 앞의 책, 119~125쪽.

99) 강수중, 「1930년대 북만지역 한족농무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2, 173쪽. 한족총연합회의 민족주의 진영과 아나키스트들의 갈등과 분열은 이호룡 논문(이호룡, 앞의 논문, 301~304쪽) 참조.

100) 이을규, 앞의 책, 117쪽; 정화암, 앞의 책, 129쪽.

101) 정화암은 『동아일보』 기사(1931.09.11. (『海林附近에서 金宗鎭被殺』))를 인용해 김종진의 암살범을 朴來春·李白湖·李益和라 하였다. 그러나 李白湖의 본명은 李白虎이며, 김종진의 권유에 의해 한족총연합회에 참여했으나 박내춘의 한테러단에 가입한 후 김종진 암살에 참여했다.

102) 강수중, 앞의 논문, 181~185쪽. 한족농무연합회와 한테러단에 관해서는 강수중 논문 참조.

103) 박내춘은 韓테러단을 조직한 후 공산주의자와 수차례 싸웠고(『동아일보』, 1932.01.31. (『兩人來歷』)), 한족농무협회도 공산주의와는 대립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김종진의 암살은 한족총연합회와 공산주의와의 갈등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 한테러단은 1931년 8월 한족농무연합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박내춘·강일·이백호 등이 1931년 8월 중순 조직한 단체였다(위의 논문, 30쪽; 『동아일보』, 1932.01.31. (『兩人來歷』)). 한테러단은 1931년 8월 중순에 조직되었고, 김종진은 1931년 8월 26일 암살되었다(『동아일보』, 1931.09.11. (『海林附近에서 金宗鎭被殺』)). 이를 통해 보면 한테러단은 조직된 후 첫번째로 김종진을 암살한 것으로 여겨진다.

들은 활동을 포기하고 중국관내로 돌아가면서 만주에서의 아나키즘운동은 중단되고 말았다.¹⁰⁴⁾

4. 맺음말

김종진은 1920년대 후반 만주에서 아나키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고, 만주지역 아나키즘운동의 선봉에 있었다. 따라서 신민부·재만무련·한족총연합회와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연구의 부진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자료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독립운동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927년 10월 북만주에 도착한 후 1931년 8월 암살될때까지이다. 따라서 일제의 기록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거의 찾을 수 없으며, 이을규가 1963년 편찬한 『시아김종진선생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민부·재만무련·한족총연합회와 관련된 연구도 단체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그의 역할은 조명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 아래 김종진의 독립운동을 규명한 것이다. 국내독립운동은 홍성에서 전개한 3.1운동을 살펴보았다. 그는 1919년 3월 7일 홍성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던 중 주동자로 체포되어 4개월간 투옥되었으며,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석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가 참여했다는 3월 7일 만세운동은 4월 4일 홍성의 구항·금마·홍동·홍북면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이거나 4월 7일 구항면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으로 보아야 한다.

만주망명은 친형인 김연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김종진은 홍성에서 3.1운동에 참여한 후 서울로 올라가 중등학교에 입학했으나 비밀활동이 발각되어 1920년 4월 중국 봉천으로 망명했다. 그의 망명은 친형인 김연진이 봉천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결행한 것이었다. 김연진은 이회영의 둘째 형 이석영과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김종진은 봉천으로 망명하면서 이회영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김종진은 봉천에

104) 정화암, 앞의 책, 130쪽.

서 광한단 활동을 전개하던 중 발각되었고, 이석영의 추천으로 북경에서 활동하던 이회영을 만났다. 이회영은 김종진의 독립운동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는데, 이회영과의 만남은 김연진과 이석영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종진은 이회영을 만나면서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이회영은 김종진을 상해의 신규식에게 추천해 중국 군벌이 운영하던 운남육군강무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진은 1921년 4월 운남육군강무학교에 입학해 1925년 4월 16기로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종진은 1921년 4월에 입학해 1923년에 16기로 졸업했으며, 1924년 12월부터 상해에서 활동했다.

그는 운남육군강무학교를 졸업한 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유하며 김우진과 함께 대한교민단의 의경대에서 활동했다. 그는 이을규·백정기·정화암 등과도 교유했다. 이들은 1920년대 중국에서 활동하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였다. 김종진은 이들과 교유하면서 아나키즘을 접하고 여운형습격사건에 관여했으나 아나키즘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여운형은 김종진이 활동했던 대한교민단 단장이었고, 족형인 김우진이 아나키즘에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종진은 1926년 4월부터 상해를 떠나 운남육군강무학교 동기 김노원과 남경·한구·무창 등지를 돌며 동지규합에 나섰다. 그러나 김종진은 중국이 내전을 시작하면서 동지규합이 어렵게 되자 만주행을 선택했다.

김종진은 만주로 향하던 중 천진으로 이회영을 찾아갔다. 그가 이회영을 찾아간 것은 만주지역에서 전개할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아나키즘이 만주항일투쟁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유용한 사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종진은 아나키즘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이회영과의 토론을 통해 아나키즘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 가장 유용한 사상이며, 아나키즘운동이 곧 독립운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나키스트가 되었다.

김종진은 신민부의 김좌진을 찾아갔다. 그는 김좌진에게 경제공동체로서의 농촌자치조직과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안을 제시했다. 그의 계획안은 아나키즘을 근간으로 둔전양병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를 위해 1928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만주지역을 순회하며 동포들의 실태 조사를 했다. 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동포들의 상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김좌진은 김종진의 보고를 받은 후 신민부 개편을 의뢰했다. 김좌진은 북만주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처하고, 민정파와 군정파로 나뉘어 내분을 겪고 있는 신민부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했던 것이다.

김종진은 신민부 개편을 위해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이을규를 초빙했고, 그와 함께 1929년 7월 재만무련을 조직했다. 재만무련은 신민부 군정파와 연합해 한족총연합회를 결성했다. 그러나 한족총연합회는 김종진과 이을규, 김좌진의 의지로 조직된 성격이 있었다. 또한 신민부군정파는 공산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아나키즘과 재만무련을 수용한 것이었고, 재만무련은 북만주지역에서 민족해방운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신민부군정파와 연합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족총연합회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김좌진이 1930년 1월 암살되면서 표면화되었다. 김종진은 김좌진이 암살된 후 중국관내 지역에서 활동하던 백정기·정화암 등을 초빙해 한족총연합회를 강화하고자 했으나 민족주의와의 갈등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1931년 8월 김종진이 암살되고 아나키스트들이 중국 관내로 철수하면서 북만주 지역에서의 아나키즘운동은 중단되었다.

김종진은 북만주 지역 아나키즘운동의 선구자였다. 그는 항일투쟁의 최적지는 만주라 여겼고, 아나키즘을 바탕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구상은 재만무련과 한족총연합회 조직으로 이어졌고, 이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아나키스트들이 추진했던 민족해방운동기지 건설사업이었다. 그러나 한족총연합회는 아나키즘과 민족주의가 일시적으로 연합한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재만무련의 김종진, 신민부 군정파 김좌진의 의지로 조직된 한계도 있었다. 따라서 김종진과 김좌진이 암살되면서 아나키즘과 민족주의는 결별하게 되었고, 만주에서 아나키즘 운동은 중단되었다.

참고문헌

- 강수중, 「1930년대 북만지역 한족농무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11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2.
- 경찰청·한국근현대사학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활동의 의의와 그 계승·발전에 관한 연구』, 경찰청, 2018.
- 국가보훈처, 『해외의 독립운동사료(XⅧ)』, 1993.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20, 1991.
- 김명섭, 「우당 이회영의 아나키즘 인식과 항일 독립운동」,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7(1),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2008.
- _____, 「이회영의 중국 망명생활과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5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 김승학, 『한국독립운동사』, 독립문화사, 1965.
- 김영범, 『한국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1997.
-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 김희곤, 「巨洲 柳林의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18,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 _____, 「上海 大韓人民團의 成立과 獨立運動」,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 탐구당, 199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9, 1975.
- _____, 『독립운동사』3, 1973.
- _____, 『독립운동사』4, 1973.
- 박결순, 「1920년대 北京의 韓人아나키즘운동과 의열투쟁」, 『동양학』54, 동양학연구소, 2013.
- _____, 「이회영과 이상설의 독립운동론과 독립운동 비교」, 『동북아역사논총』64, 동북아역사재단, 2019.
- 박 환, 「新民府에 대한 一考察」, 『역사학보』108, 역사학회, 1985.
- _____, 「韓族總聯合會의 결성과 그 활동」, 『한국사연구』52, 한국사연구회, 1986.
- 배숙희, 「中國 雲南陸軍講武堂與韓籍學員~以『同學錄』의分析爲中心~」, 『중국

- 사연구』56, 중국사학회, 2008.
- 양지선, 「李浩源의 在中獨立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10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0.
- 애국동지원호회, 『한국독립사』, 고려서림, 1994.
- 오영섭, 「고종측근 심상훈과 제천지역 의병운동과의 연관관계」, 『한국근현대사연구』3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 유영구, 「1930년 전후 滿洲地域의 民族運動過程에서 전개된 韓人아나키스트運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이강훈, 『항일독립운동사』, 정음사, 1974.
- 이성우, 「白棲 姜寅秀의 생애와 독립운동」, 『세계역사와 문화연구』52,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20.
- , 「一鳶 申鉉商의 독립운동과 湖西銀行 사건」, 『대구사학』133, 대구사학회, 2018.
- 이숙화, 「1920년대 大倭敎세력과 北滿洲지역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6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 李乙奎, 『是也金宗鎭先生傳』, 한흥출판사, 1963.
- 李丁奎, 『又觀文存』, 국민문화부출판부, 2014.
- 이종성, 「충청 내포지역 홍성출신 독립운동가의 철학적 이념과 사상의 유사성」, 『철학연구』140, 대한철학회, 2016.
- 이호룡,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1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 정원옥, 「재만독립운동단체의 민족유일당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4, 국사편찬위원회, 1988.
- 정화암, 『이 조국 어디로 갈것인가』, 자유문고, 1982.
- 조준희, 「이시열의 민족운동과 대종교」, 『승실사학』28, 승실사학회, 2012.
-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85.
- 최선웅, 「1924~1927년 上海 청년동맹회의 통일전선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44,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Abstract〉

Siya Kim, Jong Jin's Activities for the Independence and Anarchism

Lee, Sung-Woo

This study is on Kim, Jong Jin, born at Hongseong, Chungnam. During the 1920's, he provided foundation for activities of anarchists, tried to establish minjokhaebangundonggiji, and led anarchism in Manchuria. After participating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at his hometown, he came to Manchuria as an exile, and with members of the Gwanghandan, he tried to carry in weapons. In Shanghai, he met Shin, Kyu Sik who recommended him to enroll the Unnamyukkunkangmuhakkyo. After graduating the Unnamyukkunkangmuhakkyo, Kim, Jong Jin moved to Shanghai to participate in the Uikyeodae of Daehankyeomindan. In Tianjin, he met Lee, Hoe Young and embraced anarchism, and organized the Jaemanchosunmujeongbujuuijayeonmaeng and the Hanjokchongyeonhaphoe.

There has been no research conducted on him, so his achievements have been misunderstood or not been gained academic recognition. This is the first research on Kim, Jong Jin, and correct errors on participation in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and Unnamyukkunkangmuhakkyo. Also, this research establishes his activities in Gwanghandan and Daehankyomindan, and association with anarchists in China. This research reveals his relationship with Lee, Hoe Young, and his roles in establishing the Jaemanchosunmujeongbujuuijayeonmaeng and the Hanjokchongyeonhaphoe. This research also finds that his independence activities was influenced by Kim, Jwa Jin and Kim, Woo Jin.

* Key Words: Kim, Jwa Jin, Anarchism, Unnamyukkunkangmuhakkyo, Jaemanchosunmujeongbujuuijayeonmaeng, Hanjokchongyeonhaphoe

· 논문투고일: 2022년 6월 19일 · 심사완료일: 2022년 7월 18일 · 게재결정일: 2022년 7월 25일
